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10월 26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26일(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: 광물자원팀 박훈 팀장(044-203-5140), 자원개발전략과 반명진 사무관(044-203-5147)

제8차 한국-인니 에너지포럼 개최

- 에너지자립섬 사업화 등 협력, '제5차 가스개발워킹그룹' 동시진행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에너지·자원 분야의 핵심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새로운 협력기회 모색을 위해 **'제8차 한국-인도네시아 에너지포럼'**을 10.26(월), 인니 자카르타에서 열었다.

*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LNG(2위), 유연탄(2위), 석유(11위) 등 주요자원의 수입국임

○ **한국측**은 **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**을 수석대표로 석유공사, 가스공사, 전기안전공사, 가스안전공사, 한국선급, 서울대, 엘지 씨엔에스(LG CNS), SK E&S 등 12개 기관 및 기업 등 40여명이 참가했다.

○ **인니측**은 **위랏마짜**(Wirtmaja) **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**을 수석대표로 광물석탄지열청, 신재생에너지보존청, 국영석유회사(Pertamina), 국영 가스공사(PGN), 전력청(PLN) 등 30여명 참가

□ 인도네시아는 '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서, '06년까지 총 22차례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'07년부터 민간 중심의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되어 오고 있음

□ 금번 에너지 포럼은 **'에너지정책**(세션 1)', **'전력·신재생에너지·광해방지**(세션 2)', **'가스개발 워킹그룹 결과발표**(세션 3)'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, 양국간 정책공유와 협력의제 등을 제안했다.

○ 세션 1에서는 전기안전공사의 '**한국형 에너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**', 서울대의 '**국제에너지정책과정**(IEPP)', 가스공사의 **'석탄층메탄**(CBM)·**합성가스 관련 기술인력 교류**' 등을 발표했다.

- '에너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'의 경우 '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적용한 한국의 에너지안전관리 경험을 인니측과 공유하여 **'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**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세션 2에서는 엘지 씨엔에스(LG CNS)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(ESS) 등을 활용한 **'에너지자립섬 사업화'**와 대일이엔씨기술의 **'소형분산 독립형전원공급시스템'** 사업 등을 발표했다.

- 특히 '에너지자립섬 사업화'는 많은 섬(약 17천여개)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협력사업 모델로서, 인니측의 전력공급비용절감, 온실가스감축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, 우리나라 **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의 계기**가 될 것으로 기대 했다.

□ 이날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**'제5차 가스개발 워킹그룹'**도 동시에 개최하여, 상류, 중류, 하류 등 가스산업 모든 가치사슬에 걸친 기관과 기업간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.

○ **'해상부유식 엘엔지(LNG) 벙커링 터미널 협력'**(한국선급-인니 Pertamina), **'석유개발 관련 분지 공동연구조사'**(석유공사-인니 Pertamina), **'석탄층메탄가스**(CBM) **공동기술개발'**(가스공사-인니 LEMIGAS) 및 **'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'**(가스안전공사- 인니 MIGAS) 등 그간 논의해 왔던 5개 의제에 대해 구체화 방안을 상호 협의했다.

- 가스생산량 세계 10위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씨엠비(CBM) 등 전통·비전통 석유가스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탐사, 공동개발 등 우리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특히, '에너지안전관리 시스템*' 사업은 최근 열린 아세안(ASEAN +3) 회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제안한 협력사업으로 **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주도권(이니셔티브)으로 자리매김했다.**

  * ① 에너지 안전관리 법령 체계 구축 지원, ② 기술기준 제공, ③ 에너지 안전관리 교육 지원, ④ 에너지 주요 설비 안전진단 실시 등

□ 이번 포럼에서는 '가스개발 워킹그룹'을 지속 운영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간 기존 체결했던 **'석유·가스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양해각서(MOU)***'를 연장하는데 합의했다.

  * 한)산업통상자원부-인니)에너지광물자원부, 연 1회 이상 개최

□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동 포럼이 "양국간 에너지·자원 분야의 **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**하면서 **우리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제공**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□ 2016년 '제9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' 및 '제6차 가스개발WG'은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반명진 사무관(☎ 044-203-514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제8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한-인니간 에너지분야 정책교류와 협력사업 발굴·지원을 위해 정례적 민관 협력채널 운영

* 한-인니 자원협력위('79년 설치)가 '07년부터 에너지포럼으로 개편되어 매년 개최

□ 개 요

○ 일시/장소: '15.10.26(월) / 인니 자카르타

○ 참석자 : 양국 수석대표 등 60여명

- (한국) **에너지자원실장**(수석대표), 석유공사, 가스공사, 가스안전공사, 한국선급, 서울대, LG CNS, SK E&S 등 30여명
- (인니) **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**(수석대표), 전력청, 광물청, 석유가스연구소, 신재생에너지보존청, 국영석유회사 등 30여명

○ 주요 내용: 3개 세션별 의제 발표, 가스개발WG 논의 및 정부간 '석유가스분야 협력 MOU' 체결 등

* 한국측 의제 : 국제에너지정책과정(서울대), CBM·합성가스 기술인력교(가스공사), 에너지안전관리시스템(전기공사), 에너지자립섬사업화(LG CNS), 소형분산독립형전원공급시스템(대일이엔씨기술)

□ 회의순서

시간	회의 내용	비고
09:30-09:50	개회식	
10:00-12:00	세션1 (에너지정책)	
12:00-13:00	오찬	
13:00-15:00	세션2 (전력·신재생에너지)	
15:15-15:35	세션3 (가스개발 WG보고)	
15:35-16:00	폐회식	

* 포럼 및 WG은 별도 진행 / 개회식·폐회식 등 공동 진행

참고2 | 제5차 한-인니 가스워킹그룹 개요

□ 개요

o 개최배경

- 한-인니 정상회담시('12.3월) 체결한 '포괄적 에너지협력 MOU'의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제5차 WG 개최

< 포괄적 에너지협력 MOU 개요 >

○ 양국간 협력 분야
- 가스개발・활용, 가스수송・터미널, 가스공급 등 자원개발 협력

○ 워킹그룹 수석대표
- (우리측) 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
- (인니측) 석유가스청 : 가스개발국장

○ 워킹그룹을 1년에 2회 이상 개최, 구체적 사업 발굴・타당성 조사 추진

- 1~4차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세부분과(상류, 중류, 하류, 기타 등)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구체화 방안 협의

o 일시/장소 : '15.10.26(월) 10:00~12:00/자카르타

□ 5차 가스개발 WG 주요 논의 안건

○ (석유공사) 석유개발협력 및 인력교류 추진

○ (가스공사) 인니 실증광구 대상 CBM 개발기술 공동연구

○ (한국선급)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 공동개발

○ (SK E&S) 천연가스를 활용한 CPP 사업 추진

○ (가스안전공사) 한국형 가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